

중공의 멸망은 하늘의 뜻

중공은 《무신론》을 선양하면서 신을 적대시 해왔다. 문화대혁명시기에 홍위병들을 선동하여 불상을 부수고 절간을 파괴했다. 건국 이래 중공이 일으킨 《진반》, 《3 반》, 《5 반》, 《숙반》, 《반우》, 《대약진》, 《대기근》, 《반우경》, 《4 청》, 《문화대혁명》, 《6.4 학생운동 탄압》, 《7.20 법륜공박해》 등등 역대 수차례의 정치운동과 대기근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8 천만이나 살해했다. 이 몇천만의 원혼들이 어찌 중공의 살인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지금 중국은 인류도덕이 일사천리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실업 당하고 농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탐관오리들이 횡행하고 있으며 관리들이 상인들과 손잡고 경찰들이 강패들을 끼고 나쁜짓이란 나쁜짓을 다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원한이 있어도 공소할 곳이 없다. 중공이 이처럼 백성들에게 재난을 가져다주었으니 하늘이 어찌 중공의 강도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중공은 법륜공학원들의 생체장기를 적출하여 폭리를 얻는 초 인간적인 죄악을 저질렀으니 어찌 하늘이 중공을 청산하지 않겠는가?

《하늘이 그를 망하게 하려면 꼭 먼저 그를 미치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이미 미쳐버린 중공의 이 범죄거동은 바로 멸망의 징조인 것이다.

《공산주의》는 사람을 속이는 빈말이다

중공 17 차대표대회소집전야에, 당령이 60여년이 넘는 중국인민대학 전 부교장 사도는 최근 《염황춘추》 이론간행물에 발표된 자신의 장편문장에서, 중국 개혁개방과정중에서 나타난 탐오부패, 빈부격차등 그릇된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문장에서 공산주의리상을 이야기할 때, 그 무슨 공산주의 대목표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맑스주의창시인이 초기에 제출하고 만년에 포기한 명제라고 지적했다. 문장은 또 전 쏘공총서기 브르즈네프가 그의 동생에게 《공산주의란 모두 백성을 속이는 빈말》이라고 한 말을 인용했다.

사도는 문장에서 《나는 늘 생각한다. 독일 사람은 우리보다 맑스를 더 잘 알고 있으며 러시아 사람은 우리보다 레닌을 더 잘 알고 있다. 마치 우리들이 외국사람보다 공자를 더 잘 알고 있는 것과도 같다. 왜 독일 사람은 맑스주의가 현실생활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을 포기했는가? 왜 러시아 사람은 레닌주의를 포기했는가?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신처럼 봉양해야 하는가? 기치처럼 높이 추켜들어야 하는가?》고 힘주어 말했다.

신기(新)한 (장)자(字)석(石)

아래 그림은 2002년 6월 귀주성평당현장 포향에서 발견된 2억 7천년전의 藏字석이며 5백년전에 터져나온 큰 돌 절단면에 큰 한자로 《중공공산당망》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문화 인심은 속일 수 있어도
신전 하늘의 뜻은 속일 수 없다

요문전은 청조 절강귀안사람이다. 어느해 원단, 그의 한고향사람이 꿈에서 관청에 오니 《장원방이 나왔다.》고 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붉은칠을 한 대문에서 붉은 옷을 입은 관리 두명이 노란기발 2기를 들고 걸어나왔는데 기발끝에는 《인심은 속일 수 있어도 천리(天理)는 속일수 없다.》고 각각 나누어 써여져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후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리해가 되지 않았다.

얼마 안되어 요문전은 장원에 급제했다. 그 고향인이 이 꿈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요문전은 한참 생각하더니 놀라서 말했다. 《이것은 이미 세상튼 나의 고조부가 한 말이다. 그때 그는 완강에서 제형(提刑)직을 맡았는데 그당시 감옥에 모함받아 사형죄를 쓴 수인 두명이 있었다. 고조부는 심사하여 똑똑히 밝혀낸후 이 두사람을 석방하려 했다. 이때 그 두사람을 모함한 사람은 2천냥을 고조부에게 주면서 꼭 이 두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청부하였다. 고조부는 말했다. <인심은 속일수 있어도 천리는 속일수 없다. 내가 만일 돈과 재물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마구 죽인다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고조부는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여 돈을 받지 않고 억울한 두사람을 석방시켰다.》



안산시에 불혀진 전단

2007년 1월 25일 새벽, 료녕성 안산시월명산교양원부근에 있는 길가담벽에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라》, 《4대대 악경 풍각, 류부동, 장소림에게 경고한다》는 전단이 붙었고 교양원 통근차량 량측에는 《천멸중공》, 《풍각, 류부동에게 경고한다》는 전단이 악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박해를 이겨낸 대법제자 리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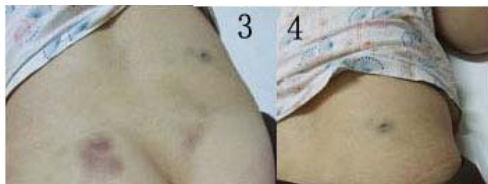
2007년 1월 12일 새벽 1시경, 대법제자 리정선(가명) 할머니는 연변 룡정시 룡문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잔인무도한 악경들은 그의 얼굴과 가슴, 다리를 마구 치고 차며 밟았다. 사진을 찍어보니 특골과 발가락뼈가 각각 한 대씩 부러졌다. 악경들은 또한 그의 머리칼을 거머쥐고 사정없이 벽에다 머리를 짓쪼았고 그의 앞이마와 뒤통수는 통통 부어올랐다. 나중엔 그는 기절해 넘어졌고 경련까지 일으켰다. 그가 대소변을 보려고 하면 악경들은 똥오줌을 먹이겠다고 모욕했고 심지어 《말을 듣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겠다.》고 위협했다.

날이 밝을 무렵, 수감인 당직실 스팀파이프에 채워져 있었는데 갑자기 거센 전류충격을 받아 39 곳이나 어혈이 졌다. 그는 저도 몰래 《누가 전기를 넣었는가?》고 소리치자 금방 잠에서 깨어난 한 경찰이 달려가 서쪽벽 중간 아래장판에 설치해 놓은 스위치를 껐다. 한 악경이 다른 방에서 전기를 흘렸던 것이다.

해질무렵, 악경들은 친척집에 보내 준다는 구실로 그를 룡정시 모 병원으로 싣고 갔다. 바퀴달린 담가차에 누워 한 주사실에 들어가자 그는 담가차에서 굴러내려와 《나는 법륜공 수련자이다. 경찰들은 나의 특골을 부러놓았다. 나는 검사하지 않겠다. 주사도 맞지 않겠다.》고 외쳤다. 경찰들은 할수 없이 그를 들어 20~30미터 떨어진 두 경찰차중간에 내려놓았다. 한 악경이 《빨리 그를 누르시오.》라고 재촉했다. 그는 한 악경의 손에 쥔 굵은 주사기를 보고 《당신들 공안에서 법륜공제자에게 주사를 놓아 식물인이 되게 하고 또 내장을 적출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에게 주사를 놓으면 나는 친척집에 가지않겠다. 나에게 주사기를 주지 않으면 차를 타지 않겠다.》고 내버렸다. 경찰은 하는수 없이 그에게 주사기를 넘겨주었다.

나중에 그는 사부님의 가지로 대법에서 수련해낸 정념과 지혜로 끝내 사악의 마굴에서 벗어 나왔다.

선악보응은 하늘의 뜻이다. 모든악인들은 빨리 각성하여 무고한 법륜공학원들에 대한 박해를 정지하라!



연길시공안국국보대대악인방

허효봉	대대장	13039085155
초빈	부대대장	2999030
현용선	부대대장	2851081
시덕지	중대장	2985233
송학산	교도원	13944385455



기적같이 되살아난 리쌍남

2006년 10월 11일 저녁 9시가 넘을 무렵 송화강변에 있는 가목사교구 망강진의 리쌍남은 아내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처가집을 다녀오던중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한순간에 두사람은 오토바이에서 튕겨났고 리쌍남의 머리우측상부가 계란만한 크기로 부풀어올라 뇌수가 흘러나왔다. 분쇄된 두개골은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었다.



그가 가목사시 중심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11시가 넘어서였다. 의사는 검진후 《맥박과 혈압이 없고 동공이 풀렸으며 CT 상에서 두개골은 이미 변형되고 뇌수가 흘러나와 살가망이 전혀없다.》고 했다. 통지를 받고 온 그의 모친(법륜공수련생)은 응급실에 들어가 큰소리로 혼수상태에 있는 아들을 부르면서 반드시 《파룬따파하오》를 기억하라고 했다. 당시 리쌍남이 입을 움직이면서 다리도 약간 움직였다. 다음날인 2006년 10월 12일 기적이 나타났다. 먼저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와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적어도 5만원정도 들고 나중에 치료하려면 20-30만원정도 소요 될겁니다. 또 꼭 좋아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고 수술을 해도 식물인간과 비슷할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3일 오전 수술전에 다시 CT 촬영을 했다. 이때 의사는 변형되었던 두개골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발견했고 조각났던 뼈도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일반병실로 옮긴 후 가족들은 그에게 사부님의 설법을 틀어주었다. 이날 저녁 9시가 넘어 리쌍남은 스스로 말을 할수 있게 되었다. 11월 10일 병원에서 MRI와 CT 검사를 하니 모든 정상이었다. 대법사부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그는 곧 퇴원하고 지금은 기억력도 회복하고 밖에 소풍도 다니고 있다.

리쌍남의 이야기는 병원주변에 널리 퍼졌다. 무릇 그가 기사회생한 일을 본 의사, 간호사, 환자 및 그의 가족과 일가친척, 동료들은 모두 《파룬따파하오》라고 찬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아울러 진상을 명백히 알게 된 사람들은 앞다뒀 《3퇴-탈당, 탈단, 탈대》를 했고 일부는 대법수련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토 | 막 | 소 | 식

▶ 길림성장춘시공안국에서 2007년 1월 중순부터 각 파출소와 가두에서 법륜공수련생들의 명단을 만들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소란을 피워내고 있다.

▶ 아태경제협조조직에서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부오스트랄리아 버스에서 광산부장급 회의를 소집하였다. 당시 법륜공학원들은 회의실 대문어구에서 대형프랜카드를 펼쳐들고 아태조직성원국은 공동히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을 강도높게 조사할 것을 호소하였다.